

사막, 그리고 황사와 싸우는 민풍-호탄



그림 1. 사막의 황사

타클라만칸을 넘고 나니 일정이 거의 끝나가는 느낌이다. 오늘은 호탄까지 간다. 책을 통해서 본 것으로는 곳곳에서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단다. 오늘 그런 곳을 보고 싶다. 호텔을 나서보니 하늘의 틈도 볼 수 없다 온통 황사가 뒤덮고 있다. 꽤나 강한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호텔 문에서도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 있었다. 호텔 종업원이 젖은 대걸레를 들고 현관을 닦고 있다. 온통 흙먼지로 뒤덮여 있으니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호텔은 공산당에서 관리하는 곳이라 한다. 그래서 그런지 종업원은 모두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고, 불친절하다. 게다가 특이한 모닝콜이 우릴 망쳤다. 방마다 살짝 노크를 하고 간 것이 모닝콜이었던다. 그 바람에 우리 일행 대부분은 아침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였다.

열친 데 달친 격으로 시내를 벗어나자마자 비포장도로가 이어진다. 흙먼지가 뒤덮고 보이는 것도 거의 없다. 그런 가운



그림 2. 황사와의 싸움



그림 3. 황사와 싸우는 사람들

데 사막화의 현장을 사진 좀 찍어보려는데 뜻 밖에 일이 벌어졌다. 가이드와 기사 사이에 거의 난투극이 벌어질 태세가 조성된 것이다. 겨우 사태를 수습하고 차를 달렸다. 그렇지만 그런 분위기에서 차를 세우라 할 수도 없고 참으로 난감하기만 하였다. 두어 시간을 그렇게 달렸다. 그 사이 갑자기 차를 세우고 기사가 직접 화장실을 가라고 한다. 하지만 어디에도 화장실은 없었다. 생각해 보니, 나름대로 기사가 미안했고 그래서 뭔가를 찾은 듯하다. 하천이 있었다. 아마도 그것이라도 보라고 세운 것 같다. 괜히 미안해서 화장실을 이야기한 것 같다.

11시 반쯤 되어서 바로 사막과 싸우는 마을을 들렀다. 사실은 모든 마을이 같은 상태이다. 도로에는 은백양나무가 우거져 있다. 물론 모래가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한 노력이다. 그래도 흙먼지가 날리기는 마찬가지인 듯하다. 어 집에 들러보니 마당도 흙, 집안도 흙, 옥상에 올라가 보아도 흙뿐이다. 그 두께가 꽤 되어 보인다. 아이도 어른도 맨발이다. 상당히 부드러워 보인다. 밤이 되면 추운지 난로가 있다. 흙먼지 속을 여인들이 아랑곳 하지 않고 걷고 있다.

다음에 들른 마을도 흙먼지와 싸우는 여전하였다. 도로 사이에 습지도 있다. 그런 습지와 하천을 따라서 논도 발달하였다. 어떤 논은 우리와 똑 같은 방법으로 모내기를 하고 있고, 소 대

신 당나귀를 이용하여 씨레질을 하고 있다. 사막 사이에 논이 있다는 것이 신기하지만 역시 물이 그렇게 귀한 것이다. 물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듯하다. 역시 길에서 만나는 아저씨들은 사진을 찍으라고 포즈를 취한다. 우전에서 들른 어느 집은 참 어렵게 사는 듯 보였다.



그림 4. 황사와 싸우는 낙타들



그림 5. 사막과 마을을 갈라주는 은백양나무



그림 6. 황사 속의 아이

한 마을의 은백양나무는 신비롭게까지 느껴진다. 도로 양편으로 마치 인공 터널을 만들어놓은 듯하다. 작은 구멍가게가 60년대의 우리 상점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 가게에는 20세기 중반과 21세기가 공존한다. 그런 구멍가게에서도 핸드폰을 판매하고 있다. 이 마을 이름은 Terakerik이라고 영어로도 쓰여 있는데, 꽤 중요한 마을 같다. 배가 고프 나머지 거기서 수박을 먹은 것이 두고두고 문제가 될 듯하다. 허지만 기사가 아까 일이 미안한 듯 조수가 수박을 자르는데 그냥 두고 볼 수도 없다. 배고플 때 먹는 수박은 뒤탈을 부른다. 허긴 아직도 점심을 먹지 못하는 것이 이상할 정도이다.

점심을 먹을 수 있는 호탄에 도착한 것은 오후 다시가 넘어서였다. 파티칼리라는 위구르족 지역 가이드가 합류하였다. 하지만 역시 별 도움은 안 되었다. 배가 고프니 먹긴 하지만 이제 음식에도 질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 모두가 그런 것 같아 걱정스럽다. 호탄은 인구 10만이 넘는 꽤나 큰 도시이다. 역시 도시 곳곳에서 시위하는 군 트럭이 거리를 가로지른다. 점심 후의 일정은 곤륜산 북쪽 기슭에 자리한 멜리카와트 유적지이다. 특이한 일이 벌어졌다. 버스에서 내려 당나귀 차를 탔는데, 이젠 웬일인가? 온 동네 사람들이 대 부대를 이루면서 우릴 따라오는 것이다. 남자들만 집에서 쉬는 모양이고 아이와 여자 어른은 모두 동원령이라도 내린 것 같다. 무슨 황제의 행렬도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웬 환영 인파인가 했더니, 그들의 정체는 쉽게 들어났다. 철조만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들의 본색이 들어나기 시작하였다. 집요하게 달라붙었다. 나만 빼고. 나는 중국에서도 인상이 험한지 나에게 붙지 않았다. 하지만 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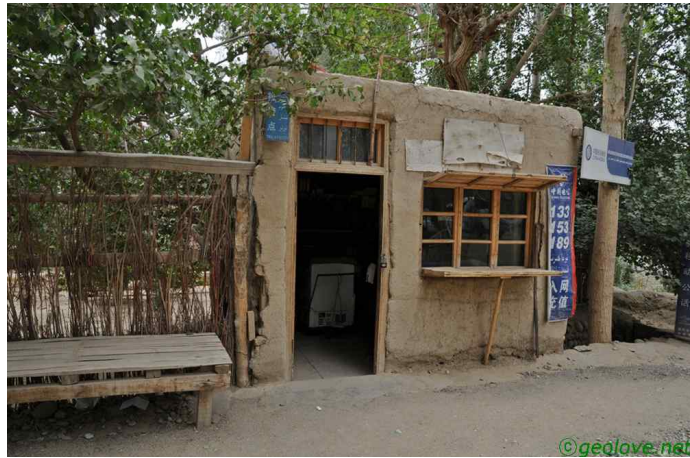


그림 7. 사막 속 마을의 상점



그림 8. 멜리카와트에서 곤륜산



그림 9. 멜리카와트의 환영 인파

해 보이는 수니씨나 채박사님께는 아이들이 떨어질 줄을 몰랐다. 오히려 그 아이에 엄마까지 가세하였다. 결국 채박사님은 손수건을 내주었다. 그랬더니 끝이 없다. 이제 파라솔까지 내놓으란다. 처음에 약간 화가 났지만, 참으로 안타까웠다. 아이들에게 어른이 되어서 잘 살아갈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라는데, 그게 길 거리에 나와서 구걸을 하라고 한다니! 차라리 집에 가서 애들 옷이라도 빨고 공부를 시키면 지금 보다는 나은 미래가 있을 것 같은데. 웬걸! 돌아오는 길에 지금까지는 약과였음이 곧 밝혀졌다. 멀쩡히 걸어가던 한 아주머니가 달리는 버스를 가로막도 들어 누웠다. 참 안타까웠다. 기껏해야 10위안 받고 일어날 것이면서. 이곳에선 안타까운 일이 또 있다. 별 것 아닌 유적을 향해서는 사진을 찍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나는 곤륜산을 향하여 사진을 찍었다. 그런 와중에 도마뱀을 잡으려다가 뛰어노는 남자 아이들은 역시 사막의 아이들다웠다.



그림 10. 사막의 아이들



그림 11. 백옥강과 곤륜산

그곳을 내려오는 길에 백옥강을 들렀다. 돌 줍기 프로그램이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역시 한국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 초등학교 시절 보물 한 번 못 건진 나로서는 그냥 쉬는 시간이었다. 백옥은 못 찾고 백옥공장을 들렀다. 역시 또 희안한 일이 벌어졌다. 8시가 넘은 시간에 옥공장에 당도하였으니 그럴 만도 하다는 생각도 한다. 공장을 견학하는데 종업원들이 옥을 깎는 것을 보라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깎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계를 돌릴 뿐이다. 혹시 북한에 가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으려나! 우리 일행은 역시나 아무도 옥을 사지 않았다. 그러고 나오는 길에 공장을 들여다보았더니 역시나! 종업원은 아무도 없었다. 우리를 위해서 쇼를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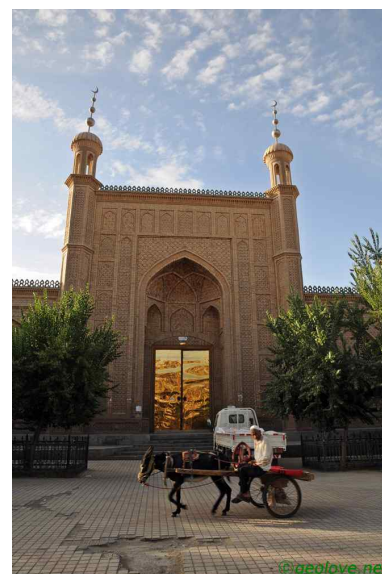


그림 12. 호탄의 회교사원

이제 날이 저물고 있다. 8시 반이다. 문이 굳게 닫힌 회교 사원을 구경만하고 하루가 끝나가고 있다. 재래시장을

보기로 하였지만 시간이 늦어서 모두
철수했다는 데 알 길이 없다. 사실 지
쳐서 설령 열었다 해도 보기도 어려울
것 같다. 그럴 것이면 왜 지역 가이드
가 필요한 지 알 길이 없다. 시장이
언제 문을 열고 닫는지는 알아야 가이
드 하는 것 아닌가! 아무튼 우리는 단
결광장 옆에 마련된 숙소로 돌아왔다.
점심 먹은 그 식당에서 다시 저녁을
먹어야 한다. 게다가 내일 아침도 먹
어야 한다. 드디어 불만이 타져 나왔
다. 다음에 또 오면 같은 식당 계속해
서 가는 것 없게 해달라고. 나도 속으론
호탄은 해발 1,391m에 자리한다.



그림 13. 호탄시장의 아저씨
그랬다.